

몽골, 인도 등 5개국과의 치안·재난 네트워크 강화

- 2025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실시 -

외교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사건·사고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기반을 구축하고자 몽골, 방글라데시, 스페인, 인도, 카자흐스탄의 치안·재난 관계자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9.15.(월)~20.(토)간 「2025년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(‘Friends of Korea’)」을 실시했다.

이번에 초청된 5개국 인사들은 외교부를 방문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, 서울경찰청 방문 시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, CCTV 기반 교통관제시스템, 과학수사 시설 등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치안 시스템을 견학했다.

또한 이들은 우리나라의 역사, 안보, 산업, 문화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외교부에서 마련한 친한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도 가졌다.

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9.19.(금) 몽골, 인도 등 5개국 치안당국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고, 향후 우리 국민 관련 사건·사고 발생 시 우리 공관의 영사조력 제공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.

이번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은 5개 국가 치안·재난 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해외출국자 수 3천만 명 시대에 발맞추어 더욱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.

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 2회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, 초청 대상은 최근 우리 국민 관련 사건·사고 등 대응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했거나 향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국가의 치안·재난 관계자로 선정하고 있다.

붙임 : 2025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사진. 끝.

담당 부서	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	책임자	과 장	김동윤 (02-2100-82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영 (02-2100-8213)

